

# '공실률 70%' 나주혁신도시 상가 해결

###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통과...오는 10월18일부터 시행

### 도심 빈 상가·모텔 등 1~2인 가구용 임대주택 전환가능

'공실률이 70%'에 달해 도시 발전을 발목잡고 있는 전남 나주 혁신도시의 빈 상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5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나주혁신도시 내 빈 상가를 주택으로 개조해 매매·임대가 가능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두 달 뒤인 오는 10월18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개정안은 도시의 빈 상가와 모텔 등을 개조해 1~2인 주거용 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공임대를 공급하기 위해 매입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를 주택과 상가를 비롯해 준주택으로 분류하는 오피스텔·기

숙사·고시원까지 확대했다.

민간 리모델링 사업자도 LH 등과 매입 약정을 맺으면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민간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빈상가와 오피스 등을 사들여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하면 주차장 기준 완화 혜택 등을 제공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시행령 적용에 대비해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하위법령에는 매입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보다 구체화하고, 매입약정 시 적용받는 주차장 완화 기준을 현실감 있게 마련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법안이 마련되자 나주 혁신도시에 상가를 소유 중인 건물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인구 3만여명이 거주하는 나주 혁신도시의 경우 상가만 1만여실에 달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다 공실률은 전국 최고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 3명당 상가 공실이 1개꼴인 가운데 문을 연 상가는 3000여실(약 30%)에 불과하고 나머지 70%는 공실로 방치된 채 놓여 있다.

문제는 앞으로도 상가가 더 공급된다는 데 있다. 현재 미 착공된 클러스터용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건축물이 잇따라 들어설 경우 전체 30%가 근린생활시설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상가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주혁신도시의 한 상가 건물주는 "언제쯤 세입자가 나타날지 학수고대했지만 3년이 넘어도 임대



공급과잉 상가 공실률이 나주 및 기립 혁신도시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한 상가건물에 임차인을 찾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문의 전화 한통 없어 걱정은 커지고 재산상 손실도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빈 상가를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디 사업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환영했다.

### 동구,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 지속운영

광주 동구가 법률지식 부족과 경제적 형편 등으로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마을세무사를 위촉해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구는 2016년 6월부터 모두 7명의 마을세무사를 위촉하고 국제와 지방세에 대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요즘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상담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동구는 활발한 도시개발과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부동산 양도세 관련 문의가 많아 마을세무사와 연계해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고 있다.

###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9월 독서의 달 행사

광주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이 오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온라인 작가와의 만남, 비대면 독후활동키트 지원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지속 상황속에 비대면서비스 확대 및 안전한 대면 프로그램 병행 제공을 통한 문화 활동을 조성코자 마련됐다.

프로그램에서는 비대면 독후활동 키트 지원 (훈자서도 잘해요), 랜선으로 떠나는 인문학 특강 (그림책을 여행하다), 영어그림책의 가치 : 전은주 작가와의 만남등이 온라인 및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 남구, 달뫼새뜰마을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광주 남구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벼랑 끝에 내몰린 예술인에게 일자리와 창작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억원 규모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수행할 작가를 공개 모집한다.

25일 남구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월산동 달뫼새뜰마을에서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대규모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이 펼쳐진다.

코로나 19로 창작 활동과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은 예술인들에게 새로운 예술작업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인과 토박이 주민들이 소통을 통해 동네 이야기를 담은 작품을 곳곳에 만들어 예술과 품격이 살아 숨쉬는 마을로 조성하기 위해서다.

### 북구, 임산부 건강 증진 특화서비스 실시

광주 북구는 임산부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특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철분제, 엽산제 등 영양제를 우편 배송하는 '임신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산모와 신생아의 모유수유 지원을 위해 1개월 동안 모유착유기를 무료로 대여해 주는 '맘(Mom) 편한비틀기 택배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임산부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전용 온라인 채널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평화로운 모자나라'를 개설하고 의료비·육아용품·건강관리 지원 등 다양한 모자보건 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광산구-호남대, 그림책 온라인 출간회 개최

광주 광산구가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와 공동협력으로 제작한 세계시민교육 그림책 '다녀왔습니다'의 온라인 출간식 'Talk Talk(톡톡), 다녀왔습니다'를 28일 개최한다.

4월 제작된 '다녀왔습니다'는 쌍둥이 남녀 중학생 지민이와 지호가 하루 동안 겪는 같은 듯 다른 성 고정관념의 일상을 휴유이 작가의 그림으로 담아낸 책.

출간식은 오전 10시30분 책 제작에 함께 한 호남대 동아리 'ODA Gada'(오다가다) 회원들의 진행으로, 호남대 통합뉴스센터에서 유튜브로 실시간 송출된다.

입형택 기자

## “어르신, 운전면허증 반납하면 10만원 충전 교통카드 드려요”

### 광주시 고령자 면허증 자진반납제 운영



반납자 중 500명을 추첨해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다 자진 반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모든 반납자에게 교통카드를 지원하고 있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고령자는 지난해 1925명이었으며, 올해는 7월까지 1205명이 추가로 반납했다.

박갑수 광주시 교통정책과장은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은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인 만큼 더 많은 어르신들의 참여를 유도해 시민생활을 보호하고 안전한 광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광주에서 고령자 교통사고는 7월 말 기준 91건이 발생했으며 사망자 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보다 발생건수는 2건이 감소하고 사망자는 동일한 수준이다.

광주시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고령자 면허증 자진반납 지원 제도는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6월 도입했다.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1950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로 5개 경찰서 민원실에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1매씩 지급한다.

이번 사업은 시행 초기에는



### 전세버스 탑승 명부작성 의무화 행정명령

### 광주시, 일회성 행사·관광·집회 등 단기 임차만 해당

주시가 25일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작성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특정 집회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되고 있다”며 “오늘 오후 5시부터 별도의 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및 탑승자에게 명부작성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버스 운행 전 반드시 탑승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탑승자 명부

를 보관해야 한다. 전세버스에 탑승하려는 사람은 명부작성에 동의하고 탑승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통학·통근·학원버스 등 정기적으로 운행되고 특정되어 있는 전세버스는 제외하며 일회성 행사·관광·집회 등 이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단기 임차 전세버스만 해당된다.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

■ 세무기장 · 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 우 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정의 인건 →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 금지 범인이 넓혀졌습니다.  
 정시간근로는 →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기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밸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복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고소득층	중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분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험료부담액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